



2013 10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46호

발행 : 우용태 010-9301-2223 / 총무 : 김석백 010-5488-9871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신(神)은 과연 존재하는가

김석백
본부총무



외 사촌형(72세)이 개인사업을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파산 후 15년 전 서울로 올라가서 역리학회를 통해서 40여 년간 철학관을 운영하여 큰 성공을 거둔 00관장으로부터 그의 사무실에서 사환 비슷하게 6개월간이나 숙식을 하면서 철학(역리학) 교육을 받고서 대구귀퉁이에서 1년간 견습 겸 실습을 마치고 마산전화국 뒤편에서 청철학관을 개업하여 아침9시부터 저녁8시까지 일요일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출근하여 몇 년 전 빚1억5,000만원을 청산하고 작년10월초에 관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철학관에서 형을 만난 결과 현재 자기 컴퓨터에 3000명 이상의 손님이 입력되어 이제는 반드시 철학관을 찾아오지 않아도 작명 사주 택일 등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본금 없는 평생사업으로서 동생 너도 내가 배워줄 테니 차후에 한번 해보라는 권고이야기를 들은 후 10월27일 오후8시경에 형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음날 장례식장을 찾은 결과, 어제 9시경 출근준비 중에 갑자기 숨이 가쁘다고 쓰러져 삼성병원으로 직행하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인공호흡(흉부압박 등)을 시키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되면서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본인이 죽는 날도 모

르고 그렇게 열심히 출근을 하였는가라고 허무감을 느끼면서 마침 옆에 문상 와서 앉아 있는 외사촌 누나(75세)가 있기에 “누나는 상남동에서 점집을 30년이나 잘하다가 왜 그만두었느냐”고 물어보니 이제 자식들 공부 마치고 장성하여 모두 출가 후 손자들이 한창 크는 마당에 점할 때는 꼭 거짓말을 좀 보태야 되는데 이제는 양심의 가책 속에 점집을 과감하게 없애고 예수를 믿으니 평소 나의 몸에 붙어서 인도해주는 귀신(鬼神)도 멀리 떠나감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 누가 예수쟁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누나 대단하오. 노리에 보살노릇 계속하면 돈도 벌고 더 편할 텐데...”라고 말한즉 누나 왈 지금이 오히려 점집 할 때보다 마음이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결론적으로 매일 거짓말로 인한 양심의 가책일 것으로 단정을 해 본다. 우리 인간은 원래 포유류의 일종으로 만물의 靈長(영장)이지만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생존경쟁의 현실 속에서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살아생전에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정직하게 착한 일과 보시를 많이 하면 사후에 극락왕생 한다고 하나 기독교에서는 생전에 아무리 정직하게 착한일과 남에게 많이 베풀어도 천당으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야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들 대신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당으로 간다는 사실이다. 하여튼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니까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믿는 사람 본인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된다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다. 안 그래도 빨리 빨리 우리 문화에서 세계 OECD국가 중 8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사회가 믿음으로 치유해 보는 것도 자살예방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사실 우리 눈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매너도 영 제로였는데 노후에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착한일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말년에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이며 의사인 닥터 존슨이 말한바 하나님은 꼭 계시며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할 때는 그 사람의 사후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하였듯이 신(神)은 꼭 있다고 생각하고 불교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한 가지 종교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권하고 싶군요. 마지막으로 총무는 비록 십계명대로는 못 살았지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천당에 가게 되면 친구도 한 두 사람뿐이고 지옥아래를 보니 동창친우들이 많이 있으면 지옥으로 내려가서 생전에 지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지껄이면서 고스톱도 치고 훌라를 배워 훌라도 하고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수요산행도 자주 참석하면서 친구들이 많은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사정사정 허락을 득하여 지옥에서 살 것입니다. *



오후6시30분에 이아인 큰성님이 마지막으로 참석하여 앉자마자 잠시 지방방송을 중지하고 지난여름 그렇게도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금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게 되어 정말 고맙고 반갑다는 우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김성규 동문의 대마도기행일정설명과 변재국 본부산악회장이 軍에서 上官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동문본인들의 건강을 위해 매주수요일 산행 참석권고에 많은 동문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다음달 10월16일 셋째 주 수요일 산행일에는 회장단에서 준비한 금일봉과 몇몇 동문들의 자의적인 찬조로써 순천정원박람회와 갈대밭, 민속촌 등으로 일일코스관광을 계획하였다는 우회장의 설명에 많은 박수로써 결정을 하다. 마지막으로 총무가 지난9월15일 봉황대기야구대회에서 군산상고에 석패하여 준우승한 사실과 10월20일에 모교한마음큰잔치(체육대회) 일정과 무학지 발간소식 등을 전하고 9월 월례회를 공식적으로 마친다.

그래도 헤어지기 아쉬워 4층 동창회사무실에서 H.R와 바둑을 두는 동문들을 뒤로하고 회장단은 조용히 귀가하다.

그리고,지난9月中旬에 서울 송일성 회장단과 부산이의승회장단에게 동창회보비 분담전액 송금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전합니다.

참석자<45명>

곽영식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철 김순택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채열 구해룡 박소학 박영환 배종길 변재국 변재웅 손기홍 손동개
 여경현 우용태 이대우 이무일 이성환 이아인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
 전기용 정안정 정정용 정창봉 제갈선광 조정웅 지해경 최광수 황동철 황희생 나길보(부산)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3년 9월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1,050,000	김기정 김방태 우용태 조정웅 각15만원		식대	534,000	대구식당
		이성환 10만원		회보제작	210,000	회보인쇄 및 봉투
		이무일 이아인 장영의 장정치 전기용 정정웅 지해경 각5만원			62,150	발송비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1,050,000			지출계	956,150	
전월이월	5,427,087			차기이월	5,520,937	
합 계	6,477,087			합 계	6,477,087	

김학영의 가림산방 : 네이버에 '가림산방' 을 입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세상(가림산방)을 확인하세요.

재경동창회 카페 : <http://cafe.daum.net/mshs21>



김건일 동문

지난 9월10일 밤11시, MBN 엄지의 제왕 '블로초편'에 출연하여 삼백초 황칠나무 명월초(당노초)의 약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東洋名句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

(걸주지실천하야, 실기민야) (맹자)

걸왕 .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FotoGallery

겨울 가을로 접어들고 많것을
지난 여름은
왜 그러도 뜨거웠습니까....

밤이 막는 계절,
야밤은 간테 없고
빈 가지집만 남은 걸 보니
새벽같이 도둑이 스현 지나갔나 봅니다.





아침 이슬에
가을이 묻어 왔습니다

天高馬肥之節이지요
하늘이야 마냥 높아져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살찌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
한가위 달만큼이나
풍성한 건강을
누리게 되는
이 가을이 되소서

이러나저러나 추석명절은 잘 넘겼다는 추석 뒷인사로 월례회를 가졌다. 연휴 뒷날이라 참석자가 걱정이 됐지만 17명이 나와 줘서 고맙다. 먼저 온 윤성업이랑 몇몇은 벌써 세월이 편안한 벽 쪽 자리가 형님 자리라고 웃겼다. 회의는 이의승 회장이 “추석명절을 잘 보내고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한 자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에 이어 일본여행에 대한 부탁을 설명했고 최진화가 금년 가을의 합동산행은 갖가지 행사의 중복으로 순연하다는 서울 친구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마산 본부의 석백, 용인, 재국, 선광이가 전해온 추석명절 인사도 고맙다. 맛깔스런 돼지수육, 국밥과 함께 소주잔을 나누면서 영민이의 금연 경험담에 맞춰 고인이 된 류길조의 추억 스토리가 화제가 됐고 만웅이가 20년 후 금연 효과론을 꺼냈지만 암튼 믿거나 말거나. 장우는 덕조의 사망소식을 뒤늦게 알고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딸자식의 초대로 미국에서 칠순 기념을 즐기는 신평이는 행복하겠지.

10월 13일 사직운동장의 ‘재부마고총동창회 체육대회’에 부부동반으로 많이 참석하여 21기의 옛 기상을 한 번 뽐냈으면 싶다. 가을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 가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 가을, 인생의 여정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이면서, 봄에 잠시 피는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도록 이 가을에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참석자(17명)

권기욱 김수곤 김준태 김효석 문호기 박진형 송길영 이의승 이장우 윤성업 정종길 정현경 조영민 조창제 천성태 최진화 하만웅

동문동정

♣ 김무웅 동문
동문의 휴대폰번호입니다.
010-3975-2637

♣ 김창환 동문
동문의 휴대폰번호입니다.
010-3641-6930

♣ 안병상 동문
동문의 주소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청솔우성아파트 111동 1702호

♣ 조재고 동문
동문의 집주소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1317
현대밀라트 1차오피스텔 1동 1118호
011-253-6232

♣ 홍창우 동문
동문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5233-7823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노량진 스토리

‘꽃보다할배’ 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반갑다

동창 중에 제일 연장자인 박금준이 먼저 와서 있고, 기대를 안 저버리고 먼데서 참석한 김창환, 홍창우와 며칠 전 이사를 하여 정신이 없을 텐데 와준 안병상, 그리고 아픈 몸으로 와준 김복남 등등..... 이젠 예약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10여명의 불참자가 사전에 통보를 하여주니 예상인원을 파악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회장을 맡고 처음 맞은 모임이여서 신경도 많이 썼는데 졸지에 총무직을 맡은 임흥무가 빛을 발하여 푸짐하고 재미있게 모임을 마침으로 모두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벌써 망년회 이야기가 나온다(서울은 3개월에 모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책임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식후에 먹을 디저트 준비하는데 문동영 왈, “일성이가 살림을 맡으니 무언가 다르네.”

참석자<27명>

- 구진웅 김복남 김영웅 김우철 김창환 문동영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 박일곤 박필근 서종성 송일성 안병상 안병조 이상진 이상환 이석우
- 이영우 임흥무 전승치 제정택 조용석 주유삼 하방근 허양도 홍창우

생각코너

이런 약속 지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 언제 한 번 저녁이나 함께 합시다.
- 언제 한 번 차나 한 잔 합시다.
- 언제 한 번 만남시다.
- 언제 한 번 모시겠습니다.
- 언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 언제 한 번 다시 오겠습니다.
- 언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입에 붙어버린 말 ‘언제 한번’, 오늘은 또 몇 번이나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약수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메일을 끝내면서, 아내에게, 아들딸에게,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래처 파트너에게 ‘언제 한 번’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약속’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말’이 한가한지 알아보십시오. 아니 ‘지금’ 만날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인사라면 ‘언제 한 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정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찾아서<행동적 시창작법>

1. 시냐, 행동이냐?

시에 있으면 꿈꾸어서 좋고 꿈을 꾸면 아늑하고 행복하고 그림이 그려지고 머리 속이 ... 무수한 말들이 꿈틀 꿈틀 용솨음쳐서 좋다. 말하자면 詩는 말의 집 말(言)의 절(寺)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밤에 혹은 잠에 청기와집 짓는다고 말한다. 言語로 자기의 꿈 소망 기도 포부 결심 애정고백 조국애 희망사항 원망 절망 등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言語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을 心想 또는 이미지라고도 한다. 요약하면 시는 마음의 그림을 언어의 그림으로 바꾸는 작업이기에 언어의 예술이라고 한다. 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2. 시와 행동

시는 언어의 예술인데 왜 행동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느냐?

내가 시가 언어의 예술에 더한다면 시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시의 힘이 왜소해지고 시의 영역이 매우 축소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예술이나 작품이나 자연이나 환경이 몹시 아름답고 우아하고 예술적이면 아아 참으로 詩的이구나라고 한다. 하느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言語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빛이 있어야 함에 빛이 있고 땅이 있어야 함에 땅이 있었다. 그러므로 시에 있어서의 언어는 절대적 언어 거짓이 없는 언어 실현 가능한 언어 즉 행동화 되는 언어야말로 말하자면 마음의 그림과 언어의 그림과 행동의 그림이 혼연일체 삼위일체가 된 詩라야만 진짜의 시가 되는 것이다.

3. 아름다움 이나 땀이냐?

시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땀이 공존해야 하지만 시에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었냐는 주안점을 두고 볼 때 美的 아름다움 보다 勞動의 땀방울이 더 力動的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인을 시작품을 비교해 볼 때 전자에 속하는 시인의 대표적 시인이 서정주 김춘수에 속한다면 후자의 땀의 시인 움직이는 시인으로 느껴지는 시인 편에는 신경림 김수영 신동문 시인이 나에게는 닥아 온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는 땀은 생각나지 않고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에 비해 신경림의 농무는 무엇인가 역동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노동의 땀 냄새가 날 것 같다. 김춘수의 꽃도 아름다움을 美的 표현이 보이고 김수영의 풀은 노동과 땀이 느껴진다.

시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땀이 동시에 보이고 느껴지면 최상의 영혼과 언어와 행동이 혼연일체 삼위일체의 작품이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한국문학 대한민국 시인들의 작품에는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고려시대의 정몽주의 시조에는 시인과 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순신의 시에도 혼연일체의 덩어리가 보이고 윤동주 한용운의 시에서는 시와 시인이 한 덩어리로 느낌이 온다. 김지하 시인에게서도 정직성이 보인다. 그에 비하면 고은의 시는 몸과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작위적인 언어의 생경함만 보인다.

나는 시를 보지 않고 시인을 본다. 왜냐 하면 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와 시인과 혼연일체가 되지 않은 시를 얼마든지 창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言語에는 靈魂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함께 하지 않은 시가 엉터리 시가 요즈음 마스크를 타고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



서해안으로의 여행과
죽도리봉

저놈이 지금 몹시 급하다며 모두 한마디씩 하고는 에스칼레이트에 오르는데 허 장군이 평소 때 선글라스를 끼는지 안 끼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글라스를 낀 허 장군과 나란히 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4)

장정치

서종성 친구가 날보고 귀한손님 특별 경호를 해준다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둔다고 스마트폰으로 찰칵하다가 에스칼레이트가 끝자락에 닿는 줄도 모르고 열중하다가 뒤로 흘렁 나

자빠지는 연출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여간 이번 여행길과 서울친구들과의 산행은 많은 추억거리를 남겼기에 두고두고 곱씹어 볼 참이다.

친구들아 극진히 환대해 줘 너무 고맙다!! *

제25회 문파문학 신인문학상 당선시 중에서... 도피

정영기(서울)



도피

담 너머 눈 쓰는 비질소리
툑툑 가지 터는 소리 울릴 것도 같은데
찬 하늘 바라보는 나무들 죄다 무심하다
허드레 말들도 아껴지던 그때
두서없이 흘러간 날들은 언제나 소중한여
해묵은 수첩 속에서 여전히 내밀한데
눈 덮인 골목길은 안개 속에 희미하다
먹이 찾는 겨울 새 한 바리가
놀라 비상해 버린 성에 낀 유리창에
온기 없이 참아내는 붉은 제라늄의
숨은 모습이 춥고 가련하다

2013년 10월 월례회 안내

수요일

야유회

oct 16

일시 : 16일(수) 오전 9시30분
집합 : 마산역 아리랑호텔 앞
행선지 : 순천(몸만 오세요...^^)

oct 21

부인회

일시 : 21일(월) 12시 30분
장소 : 맛있는 오리고기집
산호초교 옆(017-540-9394)

수요일